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정 민**

목 차

1. 머리말
2. 외국 선박의 국내 표류와 관련 기록 자료 개황
3. 다산의 「해방고(海防考)」과 「표선문정(漂船問情)」
4. 표류관련 기록의 관심 추이와 자료 가치
 - 1) 호기심과 과시 욕구
 - 2) 기록성과 정보수집
 - 3) 문화접촉과 문화 감수(感受)
 - 4) 선박 제도 탐구와 문물 교류
5. 맺음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제주도과 서남해 연안에 표착한 외국 표류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 상선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고, 드물게 일본과 외국 선박에 관한 기록도 있다. 이들 자료는 여러 문집에 산재해 있어, 종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료 검토 결과 모두 17건의 기록을 수습했고, 이를 통해 표류와 관련한 처리 절차 및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산 정약용은 「海防考」과 「漂船問情」이란 글을 통해 조선 정부의 표류선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남겼다. 그의 기록 속에도 모두 21건에 달하는 표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들 기록들은 당시 중국배의 표류가 서남해 연안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의 처리를 당시 연해지역 지방민과 관리들이 얼마나 심각

* 이 논문은 2008년 HYU 연구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아 연구되었음.(HYU-2008-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 연구사업단)

** 한양대 국문과 교수. 전자우편 : jung0739@hanmail.net

하게 생각했는 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 외국선박 표류관련 기록들은 초기에는 단순한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과 과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점차 외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해당 지역 정치 동향에 대한 기록의식이 높아진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접촉과 문화 감수(感受)가 이루어져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의 선박 제도를 탐구하여 우리 배에 적용을 시도하는 등 기술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이렇듯 이국 표류선의 서남해안 표착은 조선인이 바깥 세계를 이해하는 흥미로운 통로였고, 동시에 그 처리는 매우 난감하고 힘든 절차가 뒤따랐다. 앞으로 표류기 연구는 표류민 처리 방식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함께, 이들 접촉이 가져온 문화사 또는 교류사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제어 : 표류선, 해방고, 표선문정, 표류민, 표류기, 정약용

1. 머리말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도와 서남해 연안에 표착한 표류선에 대한 우리쪽 기록의 검토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중국 상선의 표착에 관한 기록이고, 일본인이나 드물게 아란타인과 필리핀인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지영록(知瀛錄)』에 실린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정동유(鄭東愈, 1744-1808)의 주영편(晝永編)과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및 이강희(李綱熙, 1789-?)의 『운곡잡저(雲谷雜著)』 등에 각각 한 두 편씩 수록되어 있다.

한편 다산 정약용은 중국과의 외교 관련 문서를 갈래별로 정리한 『사대고례(事大考例)』 중에 「해방고(海防考)」를 따로 두어, 표류민과 표류선 처리에 관한 내용을 시대별로 상세히 범례화 했다. 또 그는 『목민심서』가

운데 지방관이 표류선을 문정(問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5조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의 존재는 한중 관계사의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표류기는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조선 표류민 관련 기록이 1천건 이상, 인원으로 따져 1만명이 넘는 자료가 남아 있다.¹⁾ 표류민들은 나라 간의 일정한 구호 절차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표류는 대부분 해난 사고 때문이지만, 민간 차원 문화 교류의 통로가 되고, 국가간 교류와 교역의 한 창구가 되었다. 무역을 목적으로 고의로 표류하는 이른바 ‘잠상(潛商)’이나 ‘고표(故漂)’의 존재도 확인된다. 표류는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논자는 1732년 정운경(鄭運經, 1699-1753)이 제주 사람으로 해외에 표류했다가 살아 돌아온 14인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수록한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 발굴 번역하여 출간한 바 있다.²⁾ 이를 계기로 표류 문제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졌다. 최근에는 18세기 조선인의 대만 표류기 3편을 묶어 대만 당지에서 발표했다.³⁾ 대만의 학자들은 기록 속에 포함된 당시

1) 이케우치 사토시(池内 敏) 교수의 『근세일본의 조선표류민』(일본 임천서점(臨川書店), 1998)의 부록에 관련 기록 연표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후의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국학자료원, 2000)와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국학자료원, 2001) 등이 국내 학자들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다.

2) 정민(2008).

3) 정민, 「從一份十八世紀朝鮮人漂流臺灣的歷史文獻講起」. 이 논문은 2008년 10월 4일, 대만 타이중에서 개최된 대만 서사학회 국제연토회에서 발표했다. 대상 자료는 탐라문견록에 수록된 1729년 8월 대만彰化현 대돌두(大突頭)로 표류했던 제주도민 윤도성(尹道成)과, 그와 함께 표류한 송완(宋完) 등 2인의 표류기와, 1796년 9월에 팽호부(澎湖府)로 표착하여 대만부로 이송되었던 이방익(李邦翼)의 표류기가 그것이다. 후자는 연암 박지원이 왕명을 받아 정리한 것으로 『연암집』에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대만에 관한 기록에 비상한 관심을 표시했다. 표류민은 표류지의 풍물을 상세히 관찰하여 꼼꼼히 묘사했다. 이제 와 이것이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가 된 셈이다. 최부의 『표해록』에 적힌 15세기 강남 문물에 관한 묘사가 중국 학자들의 흥미로운 연구 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고에서 검토하려는 외국 표류선 관련 국내 기록은 해외 표류와는 반대 방향의 기록이다. 당시 조선인이 표류선 또는 표류민을 관찰하고, 이들과 대화한 후 남긴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의 개황을 정리하고, 당시 조선인의 외국 표류선 또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과 관심의 추이, 구체적 접촉 양상 등을 살펴, 당시 표류를 둘러싼 문화 접촉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하멜 표류기』처럼 외국인이 조선에 표류했다가 돌아간 후, 자신의 경험을 적어 자국어로 남긴 표류기도 있다. 이밖에 일본이나 중국, 또는 대만 등지에 당지인의 조선 표류기가 다수 남아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⁴⁾ 이 또한 우리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거리가 아닐 수 없다.

4) 일본인의 조선 표착 건수는 일본 측 기록으로 99건 정도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756년 5월 일본 혼슈 북단 진경(津輕) 지방 미곡 수송선 선원 4명이 강릉에 표류했다가 같은 해 10월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일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경선조선강릉표착기(津輕船朝鮮江陵漂着記)」이 있고, 이밖에 1644년 일본 에치젠에서 만주 동쪽 해안으로 표류했다가 북경과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간 내용을 적은 『조선물어(朝鮮物語)』 등의 일본 기록이 남아 있다. 강릉 쪽 표류 기록은 박경수,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한·일간 민간교류-18세기 중엽 일본인의 강릉 표류에 관하여」, 『우리문화』(강릉우리문화연구회, 1994) 창간호 109-118면을 참조할 것. 조선물어는 정하미, 『일본인의 표류기를 통해 본 조선의 표상』, 『여행기를 통해 본 한일 양국의 표상』(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8 학술대회 발표문) 등을 참조할 것.

2. 외국 선박의 국내 표류와 관련 기록 자료 개황

외국 선박의 국내 표류와 관련된 기록은 적지 않다. 단순히 표류 사실만 전하고 있는 자료는 배제하고, 구체적 정황이나 관찰기록, 또는 표류민과의 문답 등이 포함된 자료를 가려 뽑아 목록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 조선에 표류한 외국 선박 관련 기록 일람표

번호	제목	표류인 및 동행자 수	표착일 및 표착지점	송환방법	問情記	수록문헌	비고
1	漂漢人記	중국 남경 소주 상인 薛珍寶 등 213명(185명 익사, 생존자 28명)	1652년 2월 9일, 제주 정의현 川尾浦	4월 29일 배로 강진을 거쳐 개성 송환	정의현감 李卓男 기록과 함께 묘진실의 供辭 수록	『知瀛錄』	『실록』 효종 3년 3월 30일 조에 관련기사 있음.
2	西洋國 漂人記	네덜란드인 헨드릭 암센 하멜 등 64명(익사자 26명, 병사자 2명, 생존자 36명)	1653년 7월 24일, 제주 대정현 遮歸鎮	1666년 9월 좌수영 탈출, 9월 14일 나가사키 도착, 1668년 7월 20일 안스텔담에 도착	대정현감 權克中과 판관 盧錠의 보고만 있음	『知瀛錄』	『실록』 효종 4년 8월 6일조에 관련기사 있음.
3	漂人問答	중국 복건성 官商 林寅觀 등 94명	1667년 5월 24일, 제주 대정현 狹來里 포구 해변	세 척의 배에 나뉘 해남을 거쳐 서울로 압송됨.(이들은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함)	대정현감 安塾, 판관 崔鎮南의 供辭 수록	『知瀛錄』 및 『研經齋全集』	『실록』 현종 8년 6월 27일과 7월, 10월에 관련 기록 있음. 『연경재전집』과 『碩齋稿』에도 여러 관련 글이 실려 있음.
4	없음	중국 香澳島 상인 沈三 등 65명	1670년 5월 25일, 제주 정의현 末等浦 연변	배 한 척을 사주어 희망에 따라 일본으로 돌려보냄	판관 尹弼殷, 정의현감 李松老의 供辭 수록	『知瀛錄』	『실록』 현종 11년 7월 11일조에 관련기사 있음.
5	漂倭人記	일본 대마도 왜인 35명(사망자 14명, 생존자 21명)	1681년 5월 23일, 제주 정의현 서귀포 밖 草島 정박	함께 호송하여 좌수영에 인계함.	없음	『知瀛錄』	『비변사등록』 숙종 8년 6월 14일에 관련 내용 수록

6	없음	중국 남경 소주 상인 顧如商 등 70명(익사자 4명, 생존자 66명)	1687년 2월 23일, 제주 정의현 苑山 해변	배 3척에 나눠 실어 서울로 보내고, 북경으로 호송함.	관관 尹以就, 정의현감 朴世倌의 供辭 수록	『知羸錄』	『비변사등록』 숙종 13년 4월 17일, 5월 12일, 16일, 6월 1일에 관련 내용 수록
7	없음	중국 광둥성 潮州府 劉鳳 등 63명	1688년 6월 29일, 제주 정의현 未登浦 해변	화물과 함께 배에 실어 서울로 보낸 후 북경으로 송환됨.	없음	『知羸錄』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7월 30일, 9월 15일, 9월 20일에 관련 내용 수록
8	없음	중국 강남 상인 楊自遠 등 75명	1688년 8월 15일, 제주 대정현 犯叱川 해변	배를 수리하여 고쳐주고 쌀 5섬을 주어 9월 9일 본토로 돌려보냄.	없음	『知羸錄』	
9	南京漂清人記	중국 남경 徽州 程勝遠 등 45명	1690년 5월 9일, 제주 정의현 又味浦	돛과 키에 쓸 나무를 주어, 스스로 수선하여 5월 25일에 돌아감.	없음	『知羸錄』	
10	南京清人 薛子千等 稱以陳謝記	중국 福建 陳坤 薛子千 등 33명	1691년 9월 28일, 제주 정의현 서귀포 외항 草島	1688년에 陳乾 등이 조선 어부를 구해 돌아왔을 때 배편 조선 국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허락지 않자 1692년 2월 7일 출항하여 떠남.	있음	『知羸錄』	
11	없음	중국 강남 江寧府 程乾順 등 32명(익사자 5명, 생존자 27명)	1693년 12월 10일, 제주 명월진 東歸德里 해안	구호하여 의식을 제공하고, 路키를 작성하여 5월 11일 출항시킴.	있음	『知羸錄』	『비변사등록』 숙종 20년 2월 14일, 4월 18일에 관련 내용 수록
12	없음	일본 道伊羅郡 那辰島 거주 왜인 河支叱箕 등 3명	1698년 7월 26일, 제주 대정현 避歸所 연안	전례에 따라 배와 식량을 갖춰 좌수영으로 압송한 후 부산을 거쳐 10월 27일에 회송됨.	있음	『知羸錄』	

13	記福建人 黃森問答	중국 복건 사람 黃森 등 43명	1759년 겨울, 강진 해안	서울로 이송된 후 북경으로 송환됨	있음	『靑莊館全書』	이덕무가 서울로 이송된 이들을 찾아가 문답한 내용을 적은 것임
14	없음	네덜란드인 50여명	1797년, 동래 해변	표류하여 왔다가 스스로 떠남	없음	『書永編』	
15	없음	필리핀인 5명	1801년 8월, 제주 唐浦 해안	큰 배가 이들을 내려놓고 떠났는데, 북경으로 보냈다가 역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제주로 데려와 제주에서 죽음.	없음	『書永編』	끝에 이들의 어휘를 한글로 적어둔 것이 있음.
16	問情報草外	중국 강남성 蘇州府 崇明縣 상인 施洪量 등 14명	1819년 3월 1일, 나주 흑산진 우이도 앞바다	표류하여 왔다가 바람을 기다려 떠나감.	있음	『雲谷雜著』	표류선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공문 4건이 있음
17	移泊報狀外	중국 通州 彭永福 등 34명	1819년 겨울 (?)	나주 비금도 館廳仇昧로 옮겨다가 떠나감	없음	『雲谷雜著』	표류선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공문 10건이 있음

모두 17건의 기록이 확인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2건, 네덜란드 2건, 필리핀 1건 등이다. 물론 이 숫자는 구체적인 전후 기록이 남은 경우에 한한다. 인원은 [1]이 213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과 복건 지역의 상인이 대부분이다. 제주목사였던 이익태의 『지영록』에 실린 기록이 가장 많은 탓에, 표류지점 역시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문집 자료 외에 단순히 표류 사실만 기재하거나, 「문정별단」이 실린 관변 공식기록을 포함할 때 서남해안의 표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⁵⁾

5) 김경옥(2008), 5-36면에서는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표류민 관련 문정별단(問情別單)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 그 결과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관련 문정별단이 모두 14건이 확인하고 있다. 그밖에 부표에 제시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기재된 표류관련 기사는 모두 67건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는 표류관련 자료의 종합적 정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많은 경우 해당 지역 관리들이 이들 표류민과 대화한 내용을 적은 문정기(問情記)가 딸려 있다. 문정기는 당시 표류선 처리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된 사항이었으므로, 공식 기록에 포함되게 마련이었다. 다만 네덜란드나 일본, 또는 필리핀 표류선의 경우 언어의 불통으로 문정기가 빠져 있다. 문정기는 이들의 표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말해준다. 문답 과정에서 당시 상대국에 대한 정보 채집이 이루어져, 조선 정부의 관심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흥미롭다.

중국 선박은 배의 파손이 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하여 바로 돌려보냈고, 파손된 경우는 서울로 이송하여 북경으로 송환하였다. 여기에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필리핀 인의 경우 언어의 불통으로 국적을 확인하지 못해 북경까지 보냈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와 그곳에서 늙어 죽었다. 여기 실린 17건의 기록들은 당시 조선 정부의 표류선에 관한 조치와 표류민의 처리 방식 및 표류선 송환 체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간 표류에 관한 연구는 압도적 수의 우위를 보이는 조선인의 일본 표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밖에 중국이나 유구, 안남 등에 표류한 조선인의 표류기에 대한 문학적 검토가 중심이 되어 왔다. 위 각종 기록들의 존재는 이제 표류 기록에 관한 연구의 시야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다산의 「해방고(海防考)」과 「표선문정(漂船問情)」

다산 정약용은 1821년 중국과의 외교 관련 자료를 갈래별로 나눠 정리한 『사대고례(事大考例)』를 제자 이청과 공동 작업으로 마무리 한다.⁶⁾ 이

6) 『사대고례』의 자료 성격에 대해서는 임형택(2008), 25-47면을 참조할 것.

중 권 14에 「해방고(海防考) 을 따로 두어 해금(海禁)과 표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해방고 은 표류선과 표류민에 대한 조선 정부의 처리 결과를 구체적 예를 통해 정리한 일종의 표류 관련 매뉴얼이다.

그 서문에서 다산은 역대 중국과 조선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해난(海難) 사고와 표류 사건을 예로 들고서, 이렇게 적었다.

조정 벼슬아치로 표류해온 자도 오히려 셀 수 있을 만큼 많으니, 하물며 장사치의 부류겠는가? 대개 우리의 풍천(豊川)과 장연(長淵) 등지는 중국의 산동(山東)과 마주해 있고, 강진과 해남 등지는 회남(淮南)과 마주해 있다. 위도가 같은 데다 지역도 서로 가깝다. 서로 어그러지면 침범함이 서로에게 미치고, 화목하면 표류해도 서로 구해준다. 이 모든 것이 해방(海防)의 사정과 관계된다.⁷⁾

이어 다산은 「해방고」을 모두 여섯 가지 갈래를 두어 정리했다. 그 세부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금엄속례(海禁嚴束例) : 중국 선박이 몰래 장사 목적으로 건너온 것을 단속한 예 9건 소개.
2. 해도방수례(海島防守例) : 중국 선박이 조선의 공도(空島) 와 신도(薪島) 에 잠입했다가 단속된 예 3건 소개.
3. 아인표해례(我人漂海例) : 조선인이 중국에 표류했다가 절차에 따라 송환된 예 9건 소개.
4. 피인표해례(彼人漂海例) : 중국인이 조선에 표류했다가 절차에 따라 송환

7) 정약용, 「海防考序」, 『事大考例』 권 11(『다산학단 문헌집성』 제9책, 5면,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朝紳漂轉者, 尙多可數, 況商賈之類乎. 彼我胥漂, 歲至數十, 咨報往來, 亦多可考. 蓋我豊川長淵等地, 與山東相直, 康津海南等地, 與淮南相直. 緯度既同, 壤地相近, 乖迕則侵伐互及, 和睦則漂轉胥恤. 總係海防事情.”

된 예 9건 소개.

5. 피표압부례(彼漂押付例) : 중국 표류민을 압송하여 회송하는 규례 10건 소개. 각 건별로 구체적 예시를 통해 규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함.
6. 제국인표해례(諸國人漂海例) : 조선으로 표류한 기타 외국인을 중국을 통해 송환한 예 2건 소개.

이 가운데 본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4, 5, 6이다. 특히 4와 6은 앞의 도표에서 제시된 사건들이 일부 중복되어 실려 있고, 5는 처리 지침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자료는 최근해야 알려져서, 그간 관련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제 다시 「해방고」 중의 「피인표해례(彼人漂海例)」과 「피표압부례(彼漂押付例)」, 「제국인표해례(諸國人漂海例)」에 수록된 외국인 표류 내용을 다시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 「해방고」에 수록된 외국인 표류 사실 연대별 일람표

번호	표류인 및 동행자수	표류시기 및 표착지점	처리 경과	비고
1	중국 강남성 蘇州府인 苗珍實 등 213명	1652년 제주	배가 부서져 익사자가 28명 발생. 북경으로 압송함.	위 표 1과 동일 사건. 원래의 舊例는 표류인을 모두 북경까지 압송하였음.
2	중국 복건 유민 陳得 등 95명	1667년 제주 대정현	청조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조선에 남기를 희망했으나 북경으로 압송함.	위 표 3과 동일 사건.
3	중국 산둥 登州人 3명	1684년 智島	서울로 데려왔다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배로 회송시킴.	押解官에서 상을 처음으로 내리고, 이후 항례로 삼음.
4	중국 복건 상인 朱漢源 등 28명	1689년 제주	안남국에 표류했던 제주도민 고상영 등을 태워 도착함. 최소 인원만 배로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는 은으로 보상 해 준 후 북경으로 보냄.	배가 온전할 경우 바다로 보내고, 배가 부서졌을 경우 육로로 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음.

5	중국 복건성 廈門 漳州人 王富 등 114명	1704년 전라도 南桃浦	일본 장사 길에 표착해서 배가 침몰함. 이에 예인코자 하나 꼼짝 않으므로 화물만 대략 건져, 우리나라에서 판매케 하고, 대금은 은으로 환산해 줌. 그중 금지 품목은 그대로 보냄.	이후 金俊이 사람을 써서 미처 건져내지 못한 물품 중 蘇木 3만 근과 상아 6통, 흑각 84통 등을 건져 냈으므로, 이를 보관함.
6	중국 산둥성 登州人 魯正彦 등 11명	1715년 황해도 장연	봉황성으로 이송함.	이때부터 표류민을 복경이 아닌 봉황성까지 이송하는 것을 규례로 삼음.
7	중국 강남성 鎮江府 丹徒縣人 高三 등 10명	1728년 白翎鎮	봉황성으로 이송함.	
8	중국 산둥 등주인 劉植 등 14명	1730년 宣沙浦	바람을 기다려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표류민 호송 조약에 따라 이들을 봉황성에 교부함.	이전까지는 배가 온전할 경우 바다를 통해 회송했으나, 새로 발효된 호송 조약은 반드시 육로로 회송케 되어 있었음.
9	중국 강남성 松江府人 王敏思 등 16명	1733년 제주	봉황성으로 이송함	이전까지는 봉황성으로 압송한 조선 관리가 복경까지 가서 賣咨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표류민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돌아올 수 있도록 함.
10	중국 복건 興化府 莆田人 陳協順 등 22명	1739년 楸子島	양식과 의복을 주어 구호하고 배를 수리해서 돌려보냄.	중국 복건순무 王士任이 감사하는 공문을 보내음. 이때부터 표류선이 부서지면 이를 고쳐서 돌려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음.
11	중국 산둥성 萊州府人 王福得과 吳廷柱 등 2명	1756년 장소 불명	봉황성으로 이송함.	盛京에서 복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적지로 보냄.
12	중국 복건성인 蔣君澤 등 24명	1756년 장소 불명	봉황성으로 압송한 후 복경으로 보냄.	이때부터 복건 표류민은 모두 봉황성으로 보낸 후 다시 복경까지 보내도록 함.
13	중국 복건성 상인 林福盛 등 24명	1761년 장소 불명	봉황성으로 압송한 후 복경으로 보냄.	
14	중국 강남성 丹陽縣人 王相順 등 9명	1774년 장소 불명	봉황성으로 압송한 후 성경에서 원적지로 바로 보냄.	강남성 표류민은 봉황성으로 압송한 후 성경에서 바로 원적지로 돌려보내게 함.
15	중국 산둥성 登州府人 王玉山 등 남녀 68명	1777년 장소 불명	봉황성으로 압송한 후 성경에서 원적지로 바로 보냄.	이때부터 산둥과 복건 표류민은 모두 봉황성으로 압송해서 성경에서 곧장 원적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음.

16	중국 성경 등지 상인 趙永禮 등 75명	1778년 장소 불명	배가 부서져 수로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봉황성으로 압송함.	이때부터 산둥과 강남 표류민도 모두 성경에서 곤장 원적지로 돌려보냄.
17	유구국 重山島 新川村人 米精兼 등 11명	1794년 제주 대정현 가파도 앞	북경으로 압송하여 본국으로 회송시킴.	관련 공문과 유구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전 조선인의 유구 조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함. 1820년과 1821년에도 유구인이 제주로 표류했다가 배가 부서져 북경을 거쳐 회송된 예를 적고 있음.
17	중국 산둥성 榮城縣人 石進功 등	1798년 해주	일행 중 나이가 많은 楊才明에게 특별히 하사품을 내렸는데, 도중에 요동에서 병사하므로, 성경장군이 하사물을 執留하고 나머지 사람만 북경으로 보냄.	전후 사정을 설명한 盛京禮部의 咨文이 첨부되어 있음.
18	필리핀 출신 마카오인 5명	1801년 제주 대정현	흑인을 포함한 5인이 이양선의 급수선을 타고 내렸다가, 이양선의 도주로 잔류함. 북경으로 이송하였으나 다시 회송되어 제주에서 사망.	위 표 15와 동일 사건. 필리핀에 표류했다가 생환한 문순득이 이들과 만나 이들이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낸 전후 이야기가 실려 있음.
19	중국 강남성 蘇州府 元和縣人 龔鳳來 등 16명	1809년 제주	배가 난파되어 육로로 돌아갈 것을 원하므로, 운반하기 힘든 화물과 배를 장식한 철물 등은 값을 쳐서 주고 파선의 잔해는 그들의 희망에 따라 태움.	중국 盛京將軍의 咨文과 우리 정부의 답변이 따로 실려 있음. 다산은 이 선례가 이후로 큰 폐단을 낳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음.
20	중국 산둥성 登州府人 孫文緒 등 35명	1810년 장소 불명	배의 鍊錨 등의 철물을 盛京將軍이 보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값을 쳐서 보내줌.	
21	중국 강남성 通州人 彭錦祥 등	1820년 1월 1일 장소 불명	배가 파손되었으므로 동시에 표류한 다른 배의 선주 葛源裕가 돌아가는 배편에 돌려 보냄. 파손된 배는 태워버림.	중국 盛京禮部에서 태운 배의 철물 2505근의 처리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답변이 실려 있음.

위 [표2]에서 보듯 다산의 「해방고」에는 외국인의 조선 표류 기록 21건이 남아 있다. 이 중 3건은 앞서 [표1]의 내용과 겹친다. 결국 [표1]의 17건 외에 다시 18건이 더 남아 모두 35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표류 사건의 발생은 이보다 훨씬 더 빈번했다. 특히 서해안에 수시로 표착한 중국 표류선의 처리 문제는 당시 조선 정부의 큰 골칫거리의 하나였다.

특히 「피표압부례(彼漂押付例)」은 중국 표류민을 되돌려 보내는 절차의 규례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표류민을 압송하는 방법은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상세하다. 다산의 인용에 따르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경계에 표류해 오면 지방관은 먼저 해당 감영에 치보한다. 상황을 보고 받은 해당 감영은 즉시 역학(譯學)을 파견하여 문정(問情) 한다. 배가 온전하여 수로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바람을 기다려 돌아가게 한다. 만약 배가 파손되어 육로로 가야할 것 같으면 비국(備局)의 초기(草記)로 서울에서 문정관을 차송케 해서 자세히 보고하고, 차원(差員)이 안동(眼同)해서 데려가는데, 양서(兩西)에 표박한 경우는 곧장 의주로 차송하고, 삼남에 표류했을 때는 경성으로 데려온다. 이후 낭청이 문정해서 원적지로 데려다 준다. 다만 이때 산해관 안쪽의 사람은 북경으로 인계하고, 바깥 사람은 봉성에 인계해주고 돌아온다. 만약 사행(使行)과 만나면 그대로 넘겨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에는 표류민을 북경까지 데려다 주다가 차츰 변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봉성까지만 데려다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표류민의 출신 지역에 따라 인계지점을 북경과 봉성으로 구분하던 것을, 뒤에 가서는 봉성까지 가서 성경(盛京)에서 곧장 원적지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피표압부례(彼漂押付例)」에는 이러한 처리 방식의 변화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⁸⁾

다산은 이밖에도 『목민심서』 권 3, 「왕역봉공(往役奉公) 제6조에서 ‘표선문정(漂船問情)’에 관한 5조목을 남겨, 목민관의 표류선 처리지침을 제시했다. 서두에서 다산은 “표류선을 문정(問情)하는 것은 기미가 다급하고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체치 말고 시각을 다뉘 달려가야 한다”고 적고,

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다산학단문헌집성』 9책, 『사대고례』, 1-64면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다.

문정 시에 유념해야 할 5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⁹⁾

첫째, 이국 사람을 예로써 서로 공경하라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좁은 소매를 입은 것을 보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문답에 체모를 잃고 경박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소문이 천하에 퍼지기 쉽다. 공경스럽고 진실하게 대해 큰 손님을 맞이하듯 해야 한다.

둘째, 국법에 표류선 중에 문자로 된 것이 있으면 인본(印本)이나 사본

9) 정약용, 목민심서 권 3, 양역봉공(往役奉公), 제6조 : “漂船問情, 其所自勉, 凡有五條. ○一. 異國之人, 禮當相敬. 吾人每見彼人剃髮夾袖, 心懷慢侮, 接待問答, 動失體貌, 將使佻薄之名, 達于天下. 此一戒也. 恪恭忠信, 如見大賓可也. ○一. 國法, 凡漂船中所有文字, 毋論印本寫本, 盡行鈔報. 往年有一漂船, 滿載書籍, 幾千萬卷. 泊於茂長外洋, 問情, 諸官議曰: ‘將欲鈔報, 如精衛填海. 如有刪拔, 必城火及池.’ 遂掘沙場, 以累萬卷書, 埋之沙中. 漂人大痛, 亦復奈何. 李友儒修, 後爲茂長宰, 得沙中出書數帙, 若三禮義疏, 十大家文鈔, 猶有浸漬之痕. 余到康津, 得淵鑑類函一卷, 朽敗已甚. 問曰: ‘此從茂長來耶?’ 其人大驚. 大凡天下之事, 力所不能, 本無罪罰, 挾山超海. 臣曰: 弗能而朝廷罪之, 有是理乎? 則宜臚陳書籍, 但錄書名, 詳其卷數, 辭曰: 充棟汗牛, 猝無鈔寫之望, 故但錄書名, 不亦可乎? 此而遭譴, 唯宜含笑就理, 乃行推理之習, 暴殄球璧之寶, 彼將謂我何哉. 每遇一事, 唯以循理爲心, 勿以失職發怯, 則無此事矣. ○一. 問情必在海島, 島民本皆無告, 吏隸從行者, 憑藉接待, 恣行剽劫. 錡釜餅罌, 悉無殘餘. 一經漂船, 數島必亡, 故漂船到泊, 島民必拔劍關弓, 示以殺害之色, 使之遁去. 又或風急石惡, 禍迫呼吸者, 哀號乞救, 而島民窺而不出, 任其覆沒, 既沒既死, 四隣密議, 焚船燒貨, 以滅其跡. 十餘年前, 羅州諸島, 屢有此事, 羔皮焚者數萬領, 甘草焚者數萬觔. 其或逸出於火中者, 余親見之矣. 若是者何也. 本由昏官不戢吏隸, 使之縱惡, 故民亦垂泣而爲是也. 海外諸國, 若聞此事, 不以我爲脯人噉人之國乎. 故問情官, 宜明目嚴察, 禁其侵虐, 謂宜別借一大室, 列置錡釜, 使一行吏隸, 咸處一室, 其所食米鹽, 官以錢買入, 排日支放, 出來之日, 別自區處, 一粒之米, 一撮之鹽, 毋貽民害, 則庶乎一日之責, 得以小塞也. 畢竟區處陸民島民, 宜略略攤徵. ○一. 見善而遷, 小事皆然. 今海外諸國, 其船制奇妙, 利於行水. 我邦三面環海, 而船制朴陋. 每遇一漂船, 其船制圖說, 各宜詳述. 材用何木, 舳用幾版, 長廣高庫之度, 低仰軒輕之勢, 帆檣蓬絳之式, 櫂檣桅舵之狀, 油灰脛縫之法, 翼板排濤之術, 種種妙理, 宜詳問而詳錄之, 以謀倣倣. 顧乃漂人下陸, 遂將巨斧, 劈之析之, 即時焚滅, 此又何法也. 有志之士, 旣差是役, 宜以此爲心. ○一. 與彼人言語, 宜示仁惻之色, 其飲食所需, 務要鮮潔, 至誠厚意, 發於顏色, 庶彼感悅, 歸有好言.

(寫本) 할 것 없이 베껴 써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을 경우 책이 름과 권수만 적어, 순리에 따를 일이지 고지식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어 다산은 연전 한 표류선이 수만 권의 서적을 배에 가득 싣고 무장(茂長) 외양(外洋)에 정박했는데, 문정관이 책이 너무 많아 베껴 쓸 수가 없으므로 이 책을 모두 압수해서 모래 사장에 파묻어 버린 실제 사건의 예를 거론했다. 다산은 사건 이후 무장 현감으로 간 이유수(李儒修)를 통해 모래사장을 파헤쳐 찾아낸 『삼례의소(三禮義疏)』와 『십대가문초(十大家文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다산 자신도 강진에서 무장에서 파낸 『연감유함(淵鑑類函)』 한 권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일을 적고 나서, 대체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셋째, 문정관은 문정을 빙자해서 섬 백성을 침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정은 반드시 바다 섬에서 이루어진다. 문정관을 따라간 아전들이 접대를 빙자해서 섬 백성들을 겁박해 가마솔이나 그릇까지도 남아나는 것이 없게 만든다. 표류선이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여러 섬이 모두 결판난다.¹⁰⁾ 그래서 표류선이 와서 정박하면 섬 백성들이 반드시 칼을 뽑고 활을 겨냥 죽이려는 기색을 보여 이들을 달아나게 만든다. 또 바람이 거세고 암초가 있어 화가 경각에 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섬 백성들은 엿보며 나오지 않고 가라앉아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배와 화물을 불태워 흔적을 없애버린다. 그러니 관에서는 이런 침략을 엄격히 방지하여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 백성에게 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어 다산은 실제 10여년 전 나주의 여러 섬에서 벌어진 이

10) 이강희의 『운곡잡저』에 실린 『피인일공량미획급장(彼人日供糧米劃給狀)』과 『의표선소입공래추우지방관보순영장(擬漂船所入供饋推于地方官報巡營狀)』 등의 글은 모두 표류선의 표류민들에게 섬 주민들이 제공한 양식과 기타 제 비용을 관에서 보전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정황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강희, 『운곡잡저』(신안문화원, 2004), 92-98면 참조.

런 예들을 들었다. 양가죽 수 만장이 이렇게 해서 불태워지고, 감초도 수 만근을 태워 버렸다. 이런 일들이 해외에 까지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넷째, 외국 배의 좋은 제도를 보면 그 치수와 양식을 상세하게 측량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목재는 어떤 나무를 썼는지, 뱃 전은 판을 몇 겹으로 덧댔는지, 길이와 너비와 기울기는 어떤지, 돛과 돛대의 양식이나 노의 생김새, 나무판의 빈틈은 어떻게 메웠는지, 파도를 가르는 날개판의 기술은 어떤지 등등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조선 사람들은 그들의 좋은 제도를 배우기는커녕 표류민이 물에 내리자마자 도끼로 찍어 부숴 불에 태워버리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섯째, 표류민과 대화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기색을 보이고, 음식을 제공할 때는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주어, 지성껏 후의로 대해 저들이 기뻐 돌아가 우리에게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정시의 유의사항을 적은 다산의 다섯 가지 지침은 당시 서남해 연안에 중국배의 표류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의 처리가 연해 지역 지방민과 관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위 글은 관리의 탐학으로 섬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그들의 고식적인 행동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각종 사건까지 알려주고 있어 전후 사정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4. 표류관련 기록의 관심 추이와 자료 가치

본절에서는 이상 살핀 표류관련 기록의 추이와 자료 가치에 대해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눠 간략히 검토하겠다.

1) 호기심과 과시 욕구

표류관련 기록은 개인적 접촉을 적은 것과 문정(問情)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변 기록으로 대별된다. 이중 표류민과의 개인적 접촉 내용을 적은 기록들에서는 단순한 호기심과 자기 과시 욕구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1591년 중국 상인 20여명이 사탕을 팔다가 풍랑을 만나 제주로 표류한 일이 있었다. 이들이 서울로 압송되어 왔을 때, 허균은 친구와 함께 그들을 찾아가 소주(蘇州)와 항주(沆州)의 풍속에 대해 묻는다. 허균의 이어지는 질문이 마치 직접 기본 사람처럼 상세하자, 그들은 “당신은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중국의 풍토를 역력히 잘 아는가?”하고 경탄한다. 신이 난 허균은 내친 김에 그들이 사는 집과 그 지역 출신의 인물들에 대해 줄줄히 말했다. 그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허균은 『학산초담(鶴山樵談)』에서 이때 일을 자못 자랑스레 기술하고 있다.¹¹⁾

허균의 표류민 대화는 자신이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 등의 독서 체험을 통해 익힌 중국 당지의 정보에 대한 지식을 중국인에게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한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중국인과 만나 필담해보고, 그들의 중국말을 들어 보려는 호기심도 면담의 주된 동기였다.

이러한 태도는 이덕무의 「기북건인황삼문답(記福建人黃森問答)」 같은 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된다.¹²⁾ 1759년 겨울, 강진에 표류한 복건 상인 황삼 등 43명은 추위에 12명이 죽고, 나머지가 이듬해 1월 25일에 한양으로 압송되어 남별궁에 머물고 있었다. 이덕무는 2월 4일에 구경꾼이 빙 둘러선 가운데 황삼과 주고 받은 필담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덕무는 황삼이 삼보전(森莆田) 출신임을 알고는 그곳에 정씨(鄭氏)의 대족(大族)이 지금도 대단하냐고 물었다. 황삼은 혀를 내밀며 깜짝 놀라,

11) 관련 내용은 정민(1996), 169면 참조.

12) 원문은 문집 총간 257책 70면에 수록되어 있고, 『국역 청장관전서』에 역문이 있다.

정말 그렇다며 자기의 외조부도 정씨인데, 대체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고 감탄한다. 이덕무는 자랑스레 고서를 보고 알았다고 대답한다. 이어 중국의 여러 경전을 읽었느냐 묻고, 그의 식견을 점검한 후,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덕무의 관심은 지금 중국의 문장에 관한 것이었는데, 황삼은 이를 알려주기에는 너무 무식한 사람이었다. 이어 이덕무는 그의 복장에 대해 묘사하고, 그들의 말씨와 명나라에 대해 묻자 입을 다물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적었을 뿐, 그밖에 실용적인 정보나 그네들의 생활 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면담 후 이덕무가 내린 결론은 “생각컨대 지금은 세상이 다 오랑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옷깃을 왼편으로 하여 한치의 깨끗한 땅이 없다. 유독 우리 동방만은 예의를 숭상하고 갖과 띠를 두른다. 이제야 동방에 태어난 것이 다행임을 알았다.”이다.¹³⁾

이렇듯 허균이나 이덕무의 경우, 이들 표류 중국인과의 면담은 자신이 독서를 통해 구축한 정보 내용을 일방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적 만족을 얻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그치고 만다. 상대에 대한 관심 또한 자기 과시와 맞물려 있을 뿐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2) 기록성과 정보수집

이에 반해 『지영록』의 여러 기록을 포함한 문정관들의 보고는 표류 사실의 구체적 정황을 탐문하고, 해당 지역의 정치 동향을 확인하는 등 기록성과 정보 수집 활동에 중점이 있다.

특히 청조의 지배 하에서 오삼계(吳三桂)의 반란 이후 중국 강남 지역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조선 정부는 대부분 강남 출신이었던 중국 표류민을 통해 남쪽 지역의 동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지해 내기

13) 이덕무, 위 글 : “顧今六合之內, 渾爲戎夷, 薙髮左衽, 無一乾淨地. 獨我東, 尙禮義而冠帶之. 於今覺幸生東國也.”

위해 애썼다. 정조가 강남에 표류했다 송환된 이방익(李邦翼)의 이야기를 듣고서, 박지원을 시켜 그의 표류기를 정리하게 했던 일은 대개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¹⁴⁾

성해응(成海應)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는 [표1] 자료 [3]에 실린 1667년 5월 제주로 표착한 중국 복건성의 임인관(林寅觀) 등에 관한 기록이 「정미전신록(丁未傳信錄)」이란 제목 아래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들과 관련된 각종 공문을 비롯해, 각 개인과의 문답 내용, 그밖에 이들의 송환을 둘러싼 조정의 이런 저런 논쟁, 또 이들이 조선 국왕에게 올린 탄원서까지 다 들어 있다. 이들은 명나라 멸망 이후 중국을 떠나 일본 등지를 무역하며 떠돌다가 제주에 표착했다.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청조가 자신들을 죽일 것을 염려하여 이들은 본국 송환을 격렬하게 거부하였다. 이것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과 맞물려 조정 대신들 사이에 송환과 송환 반대로 갈려 격렬한 논쟁이 붙었을만큼 민감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¹⁵⁾

『지영록』에 수록된 여러 문정기는 청초의 기록이어서, 문답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류민의 입을 통해 청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조선 조정의 관심사가 한눈에 드러난다. [표1]의 자료 [1] 「표한인기(漂漢人記)」에서는 문정기에 이자성(李自成)의 반란과 이후 섬서성과 산둥 및 산서, 사천성의 동향을 세세히 물었다. 자료 [3]에서도 명 숭정제(崇禎帝)의 손자인 영력군(永歷君)의 일이나 남경과 소주, 항주 지역의 동태를 캐묻는다. 자료 [4]는 향산도(香山島), 즉 지금의 홍콩에서 표류한 65인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도 대번국(大樊國) 즉 대만과 정성공(鄭成功)에 관한 대화가 길게 이어진다. 이밖에도 자료 [6]의 오삼계의 반란과 숭정제의 후손에 대한 탐문도 있다.¹⁶⁾ 이러한 문답들은 당시 조선인의 대청인식과 관련해서

14) 김문식(2008), 제15호, 193-225면 참조.

15) 관련 내용은 문집총간 277책에 실린 연경재전집 외집 권 33에 일괄 수록되어 있다.

매우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3) 문화접촉과 문화 감수(感受)

박제가는 북학의』에 수록된 「통강남절강상박의(通江南浙江商舶議) 에서 중국 상선과 통상을 허락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해상(海商)을 해마다 10여 척씩 불러와 교역케 하되, 선주를 후하게 대접해서 빈객의 예로 대할 것을 말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청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저들에게 기술과 예능을 배우고, 저들의 풍속을 물어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천하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하고, 우리의 처지가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그 보람이 교역을 통한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¹⁷⁾

표류선은 이런 면에서 예기치 않은 문화 접촉과 문화 감수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문정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서양인과의 접촉이나 이들 문물에 대한 견문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충격을 동반했다. 이들은 이러한 충격 앞에서 허둥대는 대신 자신들의 관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¹⁸⁾ [표1] 자료 [14]에 수록된 1797년 동래 해변에 표착했던 50여 명의 네덜란드인과 접촉한 내용을 담은 『주영편(晝永編)』의 기록은 특히 흥미롭다. 배의 제도와 그들의 복장 및 조총에 대한 관찰 등이 보인다.

또한 1801년 8월 제주 해안에 잠시 정박한 이양선에서 물을 길기 위해 급수선을 내렸는데, 여기에 탄 국적 불명 외국인 5명에 관한 기록도 흥미

16) 해당 원문과 번역은, 김익수 역, 『지영록』(제주문화, 2006)에 실려 있다.

17) 박제가 저, 안대회 역(2003), 177면.

18) 이양선(異樣船) 즉 서양배의 표착과 관련된 기록은 최근 간행된 박천홍의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서양과 조선의 만남 (현실문학, 2008)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주로 서양 쪽의 기록을 중심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 연안에 출몰한 이양선과의 접촉 내용을 살폈다.

롭다. 이 자료 역시 『주영편』에 실려 있고, 정약용의 「해방고 과 정약전의 「표해시말」에도 상세한 내용이 보인다. 이들은 아무리 해도 국적을 알 수 없어, 결국 북경으로 보내졌다. 북경에서도 50일간이나 이들을 머물려두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종내 국적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을 다시 조선으로 회송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들이 처음 표착한 제주로 다시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뒤에 밝혀진 바로 이들은 마카오에 머물고 있던 여송국(呂宋國), 즉 필리핀 상인의 노예들이었다. 물을 길기 위해 급수선을 내렸다가 제주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드는 것을 보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들 5명을 남겨둔 채 달아났던 것이었다. 그들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제주에서 늙고 병들어 죽었다.¹⁹⁾ 『주영편』과 문순득의 『표해시말』에는 이들의 이름과 일상 어휘를 우리말로 적어둔 것이 각각 따로 남아 있다.

한편 표류선이 파선한 경우, 배의 화물을 건져내어 국내에서 판매케하고 그 대금을 은으로 환산해 준 예가 [표2]의 자료 [5]에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1760년에 차를 가득 실은 중국 무역선이 전라도 지역의 섬에 표류한 일도 있었다. 이 표류선에서 흘러나온 차가 호남 지역에 널리 유통되면서 온 나라가 10년간 차를 실컷 마셨다. 이 표류선의 존재는 최근 필자가 발굴 소개한 이덕리의 『동다기(東茶記)』에 보인다.²⁰⁾ 또 박제가의 『북학의』 중 「통강남절강상박의(通江南浙江商舶議)」에도 “나는 황차(黃茶)를 실은 배 한 척이 표류하여 남해에 정박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온 나라가 그 황차를 10여년 동안 사용하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 대목이 있다.²¹⁾ 이렇듯 표류선은 뜻밖에 당시 차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차문화를 다

19) 관련 내용은 『주영편』 뿐 아니라 필리핀에 표류했다가 살아 돌아온 문순득의 표류 사실을 적은 『표해시말』, 그리고 다산의 「해방고」 등에 자세하다. 전후의 상세한 내용은 임형택, 임형택(2006), 75-107면을 참고할 것.

20) 『동다기』관련 논의는 정민(2006)을 참조할 것.

시 증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또 [표1]의 자료 [10]은 매우 흥미로운 경우다. 중국 복건의 상인 진곤(陳坤) 등 33명이 1691년 제주 서귀포에 정박한 것인데, 이들은 표류선이 아니었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3년 전 베트남에 표류했던 조선인 고상영 등 24인을 싣고 조선에 데려다 준 중국 상인 주한원(朱漢源)과 진건(陳乾) 등에게 조선 국왕이 베풀어준 융숭한 은혜에 사은하겠다며 국왕과의 면담을 요청해왔던 것이다. 진곤은 바로 진건의 동생이었다. 이들의 속셈은 사은을 핑계하여 자신들이 싣고 온 물화를 판매해볼 속셈이었던 듯하다. 막 무가내의 요청에 난감해진 제주목사가 한양과 연락을 주고 받은 끝에, 9월 28일에 제주에 도착했던 이들은 근 4개월 이상을 제주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1692년 2월 7일에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표류가 때로 교역의 한 계기가 되기도 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또한 이 경우를 포함하여 표류선과 관련하여 잠상(潛商)이니 고표(故漂)니 하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무역 활동에 속셈을 두고 표류를 가장하는 경우가 한중, 한일 간에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심지어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동일인이 네 번이나 고의로 중국에 표류해 간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한편 조선과 일본의 경우는 워낙 빈번하게 표류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양국간 송환 체계가 중국과의 관계 이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²²⁾ 『지영록』에 수록된 제주 표착 일본인의 경우, 당당하게 일본이 조선 표류민에 대해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처우해줄 것을 요구하

21) 박제가 저, 안대회 역, 앞의 책, 176면.

22) 조선 후기 한일간 표류민 송환 체계와 일본인의 조선 표착 및 송환에 대해서는 이훈(2000), 중 제1부 제3장의 「조선 후기 표류민 송환체제와 대일본 관계」과 제4장 조선 후기 일본인의 조선 표착과 송환」, 그리고 荒野泰典(2001), 53-64면을 참조할 것.

는 내용이 보여 흥미롭다. 실제 1756년 5월에 강릉에 표착했던 일본 미곡 선 선원이 직접 남긴 일본측 기록에는 조선 정부의 접대가 너무도 융숭한 데 대해 감격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의 표류민 처리에 관한 제반 사무에 일정한 규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²³⁾

하지만 초기 네덜란드 인 하멜 일행의 표류와 탈출 후 처리 과정의 엇박자 대처나, 이전에 일어나 수많은 풍문을 낳은 유구태자 살해 사건, 또 앞서 다산의 「표선문정」에 보이는 표류선의 책 수만권을 백사장에 다 파묻어 버리는 고식적 행동, 그밖에 심각한 재산 피해를 우려한 섬 주민들의 구호 거부 행위 등 고식적인 상황도 빈발하였다.

4) 선박 제도 탐구와 문물 교류

표류선과의 잦은 접촉은 차츰 단순한 문화접촉을 넘어 그들의 선박 제도에 대한 탐구와 문물 교류로 확대되었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 이강희의 배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은 그 좋은 예다. 다산이 앞서 본 표선문정의 제4조에서 이렇게 적었다.

좋은 것을 보면 옮겨 오는 것은 사소한 일도 모두 그렇다. 이제 바다 밖 여러 나라는 그 배의 제도가 기묘하여 물을 다니는 데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데도, 배의 제도가 질박하고 보잘것 없다. 매번 한 척의 표류선을 만날 때마다, 그 배의 제도를 그림으로 설명해서 재목은 어떤 나무를 썼는지, 뱃머리는 나무 판을 몇 겹이나 덧댔는지, 길이와 너비, 높낮이의 정도, 추녀의 높낮이 정도, 돛과 돛대를 내거는 방식, 노와 돛대와 키의 생김새, 유희(油灰)로 빈틈을 메우는 법, 날개판으로 물결을 밀쳐내는 기술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묘리는 마땅히 상세하게 물어 자세하게 기록해서 본뜬 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돌아보건대 표

23) 박경수(1994) 창간호 참조.

류민이 육지로 내리기만 하면 마침내 큰 도끼를 가지고서 이를 쪼개고 잘라서 즉시 불살라 버리니 이것이 또 무슨 법이란 말인가? 뜻있는 인사가 이 일을 맡게 되면 마땅히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²⁴⁾

다산의 이러한 측구는 그의 제자인 이강희에게서 즉각 실천되었다. 이강희는 1818년 우이도 문순득의 집에 머물면서 그에게서 들은 외국 배의 제도와 자신이 직접 관찰한 표류선의 모양과 칫수를 상세히 정리하여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운곡선설(雲谷船說)」 등의 논문을 발표한다.²⁵⁾ 특히 [표1]의 자료 [16]과 [17]은 1819년 우이도에 표류한 중국 배 2척에 대해, 위 인용에서 다산이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의 칫수와 특징, 제원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

이에 이르면 표류선은 단순한 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으로 바뀐다. 이는 이후 더 빈번하게 출몰하는 서구 이양선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밖에 외국 표류선에서 목격한 신기한 물건이나 지도, 망원경 등과의 접촉은 외부 세계에 대한 열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향후 더 꼼꼼한 관찰과 정리가 필요하겠다.

5. 맺음말

표류기는 그간 문학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노정기 정리나 내용 설명 위주의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이제 표류기 연구는 표류민 처리 방식

24) 해당 원문은 각주 7을 참조할 것.

25) 안대회(2005), 289-321면과 임형택, 「다산학단에서 해양으로 학지의 열람: 이강희의 경우」, 앞의 책에 자세하다.

26) 2004년 신안문화원에서 펴낸 신안향토사료지 『운곡잡저』에 관련 글의 번역과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함께, 이들 접촉이 가져온 문화사 또는 교류사적 의미에 대해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남아있는 외국 선박의 조선표류와 관련된 국내 기록 자료를 소개 개관하고, 이들 자료가 갖는 가치를 살펴보았다. 뜻밖에 풍부한 자료들이 남아 있고, 내용 또한 흥미롭다.

다산은 『사대고례』 가운데 「해방고」를 남겨, 표류민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정리했고, 또 『목민심서』 중에 「표선문정」 5조를 통해, 표류선 처리에 임하는 관리의 자세를 정리했다. 이는 표류선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당시 서남해안 주민들의 폐단과 잘못된 일 처리가 국가의 위신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한 작업이었다. 특히 「해방고」의 여러 내용들은 주로 조중 관계에서 표류선 처리 방식의 변화 추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이고 있어, 관련 내용의 경과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하다.

표류기록은 개인적 차원의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가 두드러진 경우도 있지만, 관변 기록의 경우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보 탐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한다. 또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국 문화와의 교류와 감수가 이루어졌다. 일부 표류선의 물화(物貨)는 국내에 유통되기도 했다. 나아가 선박 제도와 같은 문물에 대한 관심의 확장도 이루어졌다. 이런 점은 근대로 이어지는 지적 욕구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세부적 내용들이 적지 않다. 일본과 관련된 보다 많은 기록의 정리 발굴이 있어야겠고, 19세기 중반 이후 연해에 빈번하게 출몰했던 이양선과 관련된 기록의 정리와 확보도 시급하다. 이어지는 작업을 통해 이 부분으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대해 볼 작정이다.

참고문헌

- 박제가 저, 안대회 역(2003), 『북학의』, 돌베개.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2008), 『다산학단 문헌집성』 전 9책, 2008.
- 이강희(2004), 『운곡잡저』, 신안문화원.
- 이강희(2005), 『유암총서』, 신안문화원.
- 이익태 저, 이익수 역(2006), 『지영록』, 제주문화.
- 정동유(1971), 『晝永編』,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 정약전·이강희 저, 김정섭·김형만 역(2005), 『유암총서』, 신안문화원.
- 정운경 저, 정민 역(2008), 『탐라문건록』, 휴머니스트, 2008.
- 김문식(2008), 「서이방익사에 나타나는 박지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 제15호, 한국실학학회 전반기, 193-225면.
- 박경수(1994),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한·일간 민간교류-18세기 중엽 일본인의 강릉 표류에 관하여」, 『우리문화』, 강릉우리문화연구회, 창간호 109-118면.
- 박천홍(2008),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서양과 조선의 만남』, 현실문화.
- 안대회(2005), 「다산 제자 이강희의 이용후생학」, 『한국실학연구』 제10호, 한국실학학회, 289-321면.
- 이케우치 사토시(池内 敏, 1998), 『近世日本の朝鮮漂流民』, 日本 臨川書店.
- 이 훈(2000),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 임형택(2006), 「다산학단에서 해양으로 학지의 열림: 이강희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5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75-107면.
- 임형택(2008), 「사대고려와 정약용의 대청관계 인식」, 『다산학』 제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5-47면.
- 정 민(2006), 「이덕리 저 동다기의 차문화사적 자료 가치」, 『문헌과해석』 제36호, 문헌과해석사, 297-330면.
- 정 민(1996), 「임란시기 문인지식인층의 명군 교유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국한문학회, 151-186면.
- 정 민(2008), 「從一份十八世紀朝鮮人漂流臺灣的歷史文獻講起」, 대만서서학회 주최 국제학술연토회 발표문, 대만 타이중 중흥대학.
- 정하미(2008), 「일본인의 표류기를 통해 본 조선의 표상, 여행기를 통해 본 한일 양국의 표상」,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
- 한일관계사학회 편(2001),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Abstract>

Drifting Ships, Uninvited Guests

– The study on records related to foreign ships drifting in Korea –

Jung, Min*

This paper is due to examine the records on foreign drifting ships roved around Jeju island and the west-south coast of Korea during the latter *Josun* Dynasty. Most records were concerned about Chinese merchant ships. Rarely records on Japanese and other foreign ships were existed. As these materials are scattered in several anthologi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arrange them. After researching the materials, as the result, 17 cases of drifting ships were found. And it confirmed the processing and the interest which is concerned to drifting.

Dasan Jeong Yakyong left the manuals on processing drifting ships of *Josun* government in *Haebanggo* 「海防考」 and *Pyosunmunjung* 「漂船問情」. He concretely recorded 21 cases of drifting ships. These shows how many times the drifting of Chinese ships broke out in west-south coast and the local officers and people seriously thought about dealing with these accidents.

Most of the early records on foreign drifting ships arose from simple curiosity about foreigners and desire of ostentation. The records, however, gradually gathered the information on foreign countries and indicated higher consciousness of the records on political trends in the area. Moreover, these records had acted as the opportunity of heightening to understand outer world through the contact and the reception of various cultures. Also the technical investigations such as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Hanyang University.

E-mail : jung0739@hanmail.net

examining foreign ships and applying into ships of *Josun* were done.

Drifting foreign ships in the west-south coast were a passage for people of *Josun* to understand outer world. At the same time, dealing of these accidents brings about the very unbearable and tough procedures. From now on, it is necessary for the studies on drifting records to pay attention to the cultural or interchangeable meaning of these contact as well as the historical approaches on treating castaways.

Key Words : records related to foreign ships drifting, drifting ship, *Haebanggo*, *Pyosunmunjung*, *Jeong Yakyong*

본 논문은 2009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09년 4월 23일 심사 완료하여
2009년 5월 26일 게재를 확정하였음.